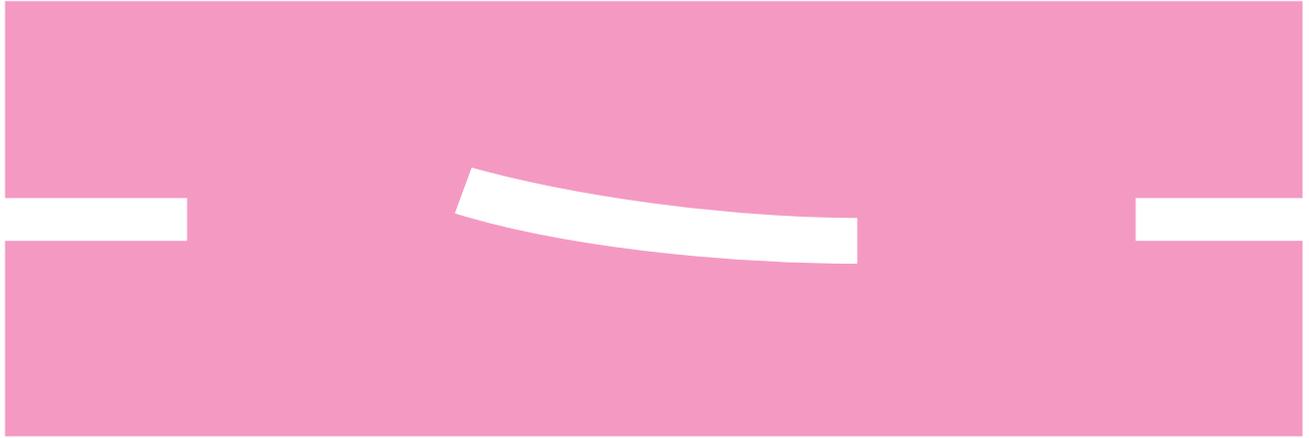


다



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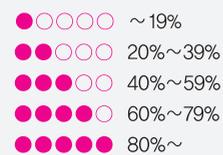
# 이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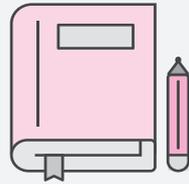
더풀 국어

- 01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지문과 문항
- 02 2024학년도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15문항이 오답률 45% 이상  
언어와 매체 10문항이 오답률 45% 이상  
준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던 경향을 충분히 반영
- 03 모든 문항의 난이도 제공하여 오답률\*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실전 감각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 04 익숙한 기출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로!  
수능국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우수 문항 제작!
- 05 수능 연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효율적 대비가 가능한 다양한 독서 제재와 문학 작품, 선택 과목까지 한번에
- 06 2024학년도 수능 구성과 문제 유형을 충실히 반영  
수능 연계 지문과 비연계 낯선 지문의 적절한 구성으로  
실전 감각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 07 모든 선지에 대한 꼼꼼하고 친절한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오답률



# CONTENTS



더플 국어

---

|                       |     |
|-----------------------|-----|
| 01. [독서] 인문 .....     | 5   |
| 02. [독서] 사회 .....     | 21  |
| 03. [독서] 과학기술 .....   | 37  |
| 04. [독서] 독서론 .....    | 53  |
| 05. [문학] 현대소설 .....   | 65  |
| 06. [문학] 현대시 .....    | 79  |
| 07. [문학] 고전소설 .....   | 93  |
| 08. [문학] 고전시가 .....   | 109 |
| 09. [선택] 화법과 작문 ..... | 125 |
| 10. [선택] 언어와 매체 ..... | 169 |
| 정답 및 해설 .....         | 213 |



# 01

## **[독서] 인문**

- 02. [독서] 사회
- 03. [독서] 과학기술
- 04. [독서] 독서론
- 05. [문학] 현대소설
- 06. [문학] 현대시
- 07. [문학] 고전소설
- 08. [문학] 고전시가
- 09. [선택] 화법과 작문
- 10. [선택] 언어와 매체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성(人性)이 동물의 본성인 물성(物性)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 고찰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변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호락논쟁으로도 불리는 이 논변은 ㉡ ‘성(性)’과 ㉢ ‘리(理)’의 관계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기인했는데, 이간과 한원진이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간은 인간과 동물이 우주의 궁극적 원리인 ‘천(天)’의 명(命)을 부여받아 생겨났다는 점에서 그 본성은 동일하므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유교의 윤리적 덕목인 오상(五常)을 갖추었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한다. 반면 한원진은 인간과 동물이 천명을 받았지만 본성은 서로 다른 기질에 내재된 것이므로, 오상의 전부를 갖는 인성과 달리 물성은 오상의 일부만을 갖는다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한다.

성리학은 만물의 보편적 근원인 리와 만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 ㉣ ‘기(氣)’로 세계를 규정한다. 이간은 성과 리가 서로 명칭이 다를 뿐 그것이 ㉤ 지시하는 실체는 같은 것으로 보고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했다. 이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기 위해 일원(一原)과 이체(異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일원이란 리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본연지성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체란 리와 기의 결합으로 형성된, 현상 세계의 서로 다른 개체를 말하는데, 개체의 각기 다른 기질에 구속된 상태의 성은 기질지성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간은 인간과 동물은 본연지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기질지성이 달라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으며, 성인(聖人)과 범인이 다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성과 리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논했다. 그는 성즉리 명제에 대해 ‘성은 리로부터 유래한다.’라는 뜻으로 성즉리를 해석했다. 성은 리로부터 유래하지만 기에 내재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성은 기에 내재해 있는 리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성은 이간이 말한 일원으로서의 리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한원진은 성이 기질과 관련을 맺되 ‘기질에 근거한 충’과 ‘기질에 혼잡된 충’이 구별된다고 보고 이를 각각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동일한 종류의 존재가 갖는 기질에 근거한 성이므로 인간들끼리는 서로 같지만 인간과 동물 간에는 서로 다르다. 기질지성은 개별 존재의 기질이 섞인 개체 각각의 성을 뜻하므로 개별 인간에 따라 혹은 개별 동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나)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칸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 행위자, 즉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고 그 추론에 근거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존재는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목적적 존재로, 인간의 목적은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계발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동물도 목적을 지니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므로 동물은 인간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칸트는 고통을 느끼는 등 동물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유사한 면이 있고 동물에 대한 행위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 안 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성에 따른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리학자로 피터 싱어가 있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이 도덕적 고려의 조건이 된다면, 이는 인간 내에서도 더 합리적인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은 인종차별주의나 엘리트주의 등으로 ㉧ 발전할 수 있으므로 옹호되기 어렵다. 또한 인간만이 갖는다고 여기는 합리성, 도덕성, 언어 사용 능력 등을 일부 지니는 동물도 존재하는데 어떤 동물 종은 고유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도구를 사용한다. 따라서 합리성과 같은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는 배타적 특성이라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유아, 식물인간, 뇌 손상 환자와 같은 ‘가장자리 인간’은 합리적 행위나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며 언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가장자리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싱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01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있고, (나)는 핵심 개념의 실제 용례를 분석하고 있다.
- ② (가)는 논쟁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전통적인 주장에서 특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 사상가의 주장이 논박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나)는 특정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구분하고 있고, (나)는 특정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나)는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관점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0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간은 사람들 간의 본연지성은 같지만 기질지성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② 한원진은 기질에 혼잡된 층의 차이로 인성과 물성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 ③ 이간과 한원진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천명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 ④ 이간과 달리 한원진은 인간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보았다.
- ⑤ 한원진과 달리 이간은 인간과 동물이 윤리적 덕목을 동등하게 갖추었다고 보았다.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성이론에 따르면 ㉠은 ㉣이 ㉡에 내재되어 유래한 것이다.
- ② 인물성동론에 따르면 ㉠과 ㉡은 모두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③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은 모두 ㉠과 ㉡이 지시하는 실체가 같다고 본다.
- ④ 인물성이론과 달리 인물성동론은 ㉡이 ㉣과 결합하여 본연지성을 이룬다고 본다.
- ⑤ 인물성동론과 달리 인물성이론은 인간과 동물의 ㉣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을 수 없다고 본다.



04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트는 동물이 주어진 목적이 없는 존재이므로 인간과 도덕적 지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 ② 칸트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계발하는 목적적 존재로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 ③ 칸트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별개로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④ 싱어는 합리성의 개념을 문제 삼아, 인간과 동물을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싱어는 가장자리 인간을 근거로 내세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비판한다.



05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 활동 기록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지위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해 보자.

○ 사례

- ㉠ 오늘날에는 반려 동물도 인간에 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 ㉡ 침팬지 무리에서 특정 개체들은 훈련에 따라 수십 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등 유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 ㉢ 현대 법체계에서 살인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인 사람뿐이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한다.

○ 고찰

[A]

- ① ㉠에 대해 인물성동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지 않으며 만물은 동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것이다.
- ② ㉠에 대해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물을 존중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것이다.
- ③ ㉡에 대해 싱어는 이성에 따른 자율적 행위 능력이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볼 것이다.
- ④ ㉡에 대해 인물성동론은 침팬지들끼리 본연지성은 같지만 기질지성이 달라서, 인물성이론은 본연지성은 다르지만 기질지성이 같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것이다.
- ⑤ ㉢에 대해 인물성이론은 인간과 동물의 기질에 근거한 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법 적용이 구분된다고 볼 것이다.



0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꿩은
- ② ㉡ : 가리키는
- ③ ㉢ : 여기지
- ④ ㉣ : 주어야
- ⑤ ㉣ : 나아갈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대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우주론이 등장했다. 네모나고 평평한 땅 위를 둥근 하늘인 천구(天球)가 덮고 있다는 개천설에서 출발한 우주론은 이후 혼천설로 ㉠ 계승되었다. 혼천설은 ‘기(氣)’로 채워진 천구가 네모진 땅 주위를 회전하는 일주운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늘의 반은 평평한 땅 위를 덮고 나머지 반은 땅 아래에 있어서 땅 위에 사는 인간의 눈에 나머지 반은 가려져 있다고 보았다.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계관도 달라졌으므로 우주론은 이후로도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송나라 학자인 장재는 혼천설을 심화하는 개념들을 제시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공간에 가득 찬 ‘기’인 ㉡ 태허와 구체적인 자연 현상이나 사물인 ㉢ 객형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보았다. 이때 객형은 ‘기’가 둘로 분화한 음(陰)과 양(陽)의 상호작용인 ㉣ 태화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객형에는 태허가 깃들여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육체와 육체에 깃든 정신이 각각 객형과 객형에 깃든 태허에 대응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훗날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동일시하는 성리학적 사고의 토대가 되었다.

한편 혼천설에서는 땅이 정지해 있고 천구가 움직인다는 ‘천동지정(天動地靜)’으로 천체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였다. 천동지정은 우선설과 좌선설로 나뉘는데, 우선설은 천구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천구의 안에 있는 천체들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는 입장인 반면, 좌선설은 천구와 같이 천체들도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천체들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천구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설은 좌선설과 달리 일식이나 월식 현상을 ㉤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실용성을 중시한 당시의 역법가들은 이를 ㉥ 수용하였다. 반면 좌선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주장함으로써 후대 성리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주희는 천체가 천구처럼 ‘기’로부터 형성된 것이므로 천체 역시 천구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선설을 따르면 태양이 달보다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태양과 달을 각각 양과 음의 성질을 지닌 천체로 본 성리학적 체계에 ㉦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네모난 땅의 중심을 중국으로, 네 귀퉁이에 해당하는 주변을 오랑개로 보았던 중국 중심의 전통적 화이관은 흔들리게 되었다. 이 무렵 실학자 홍대용은 유기체적 자연관을 기반으로 화이관에 맞서는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홍대용은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을 가린 그림자가 땅에 둥글게 나타나는 현상과 지평선의 모양 등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근거로 땅이 둥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는 지구상의 각 위치는 경도와 위도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상하나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리적 상대주의 논리는 사람이 밭을 디딘 중심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그는 ‘상하지세(上下之勢)’를 ㉧ 도입하여 지구가 둥글어도 불구하고 지표면 어디에서나 사람이 밭을 딛고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힘인 상하지세가 형성되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땅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지구의 자전과 함께 움직이는 ‘기’가 우주와 맞부딪쳐 허공에 응집되어 땅덩어리를 향해 모임으로써 상하지세가 형성된다는 지전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그는 사물의 운동과 형성에 음양의 조화가 관여한다는 성리학적 논리를 부정하였다. 그는 음과 양이 별개의 ‘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이며,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주를 안과 밖이 없으며 그 어떤 방향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공간으로 여겼다. ‘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천체들이 떠돌 뿐이므로 우리가 보는 천체들도 광대한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세계의 중심을 부정하는 그의 상대주의적 입장이 우주 공간까지 확장된 것이다.

세계와 우주에 대한 홍대용의 통찰력은 전통적 화이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그는 세계 문명의 중심을 뜻하는 ‘화’와 변방의 오랑개를 뜻하는 ‘이’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사람의 이치가 자연을 비롯한 사물의 이치와 대등하다는 인물균론(人物均論)으로 발전하였다.



0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우주론의 기본 원리가 다른 분야의 이론과 주고받은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우주론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각 우주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상반된 두 우주론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전통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우주론이 다른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08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과 땅의 형태와 그 관계에 관심이 높았다.
- ② 혼천설에서는 천구와 땅이 회전 운동하며 인간은 천구 전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③ 주희와 역법가들은 모두 '천동지정'을 수용했지만 천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 ④ 홍대용은 '상하지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물의 형성에 음양의 조화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⑤ 홍대용은 세계와 우주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국과 조선의 위계질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09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갖든 ㉡에는 정신이 갖든 자연이 있다.
- ② 별도로 있던 ㉠과 ㉡이 결합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기'가 분화하는 순간에 ㉡이 들어 있는 ㉠이 형성된다.
- ④ ㉢에 의해 ㉡이 발생하므로 정신에는 '기'가 깃들어 있다.
- ⑤ ㉢은 ㉠의 분화로부터 발생하므로 사물에는 ㉠이 들어 있다.



10 (가)의 '장재'와 (나)의 '홍대용'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관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상 전개의 근거로 삼았다.  
 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ㄷ.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인간에게도 적용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1 <보기>는 윗글의 내용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천구의 회전에 의해 '기'의 움직임이 생기고 이를 통해 땅이 떠받쳐진다. 이러한 '기'의 움직임이 없다면 사람이 서 있는 땅은 아래를 향해 떨어질 것이다.  
 ㉡ 땅을 디디며 한쪽을 향해 몇 달에 걸쳐 걷다 보면 하늘의 큰 별을 바라볼 때의 각도가 서서히 작아진다. 이는 그 사이에 내 키가 커진 것이 아니라 땅이 굽어 있기 때문이다.  
 ㉢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타고났지만 유일하게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상의 밝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 일곱 천체들은 하늘에 매여 있지 않다. 이들은 땅을 둘러싸고 하늘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천체들의 속도가 저마다 다른 것은 각각의 성질에 기인한 것이다.

- ① 홍대용은 '기'의 움직임에 의해 땅이 떠받쳐진다는 ㉠의 입장을 긍정하므로 '기'의 움직임이 없다면 땅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겠군.
- ② 홍대용은 땅이 굽어 있다는 ㉡의 입장을 긍정하므로 큰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변화 외에도 여러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옹호하겠군.
- ③ 혼천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땅이 굽어 있다는 ㉡의 입장을 부정하므로 큰 별을 바라볼 때의 각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으려하겠군.
- ④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동일시하는 성리학자는 인간과 동물을 별개로 보는 ㉢의 입장을 부정하므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주희는 천체들의 속도가 각각의 성질에 기인한다는 ㉣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천체가 '기'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천체가 하늘과 반대로 회전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군.



1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어졌다
- ② ㉡ : 쓸모있게
- ③ ㉢ : 받아들였다
- ④ ㉣ : 어긋나는
- ⑤ ㉣ : 끌어들이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의 마음은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송나라의 학자,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리(理)’로 여기는 ㉠ ‘성즉리(性卽理)’를 표방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률의 근거인 하늘의 명령을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만물의 이치이자 도덕률인 ‘리’를 바탕으로 감정과 행위를 선택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선택한 행위는 인간에게 도덕률을 인식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늘의 명령은 만물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리’는 만물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희는 ㉡ 현실적으로 악한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의 마음이 몸의 작용 하에 놓여 있듯이, 인간의 마음은 물질적 요소인 ‘기(氣)’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감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형체를 초월한 ‘형이상’과 구체적 형상 안에 있는 것인 ‘형이하’가 ㉢ 양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은 마음 상태인 ‘미발(未發)’과 외부의 자극을 받아 ㉣ 발현된 마음 상태인 ‘이발(已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역시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희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과 달리 인간의 마음은 모순과 대립에서 성립한다고 보았다. ‘리’는 ‘형이상’이면서 ‘미발’에 속한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 마음이 발현된 후에도 여전히 ‘리’는 마음의 밑바탕에 ㉤ 존재하고 있는데, 보편성과 개인성, 선형성과 경험성, 도덕적 당위성과 사적 이해관계가 마음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본성과 감성을 통괄하며 그 대립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체이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에게 본성은 발현 가능성을 지닌 것인 가능태로 주어졌으며, 이를 현실에서 발현된 것인 현실태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 이외의 존재는 열악한 ‘기’가 본성을 가리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있어 본성을 발현하여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 한정되며, 인간만이 도덕적 이치를 밝히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나)

주희의 성리학은 후대 유학 사상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따지기만 하고 실천을 등한시하는 이론적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에 왕수인은 당대의 지식인들을 각성시킬 목적으로 양명학을 창시하였다. 실천력 결여의 원인을 주희의 사상에서 찾았던 왕수인은, 책을 통해 이치를 배우기만 할 뿐 그 이치가 극진해지지 못해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효도를 하려는 이들이 책을 통해 효의 도리를 배우려고만 할 뿐 효심 자체가 깊어지지 않아 효를 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의 바깥에서 이치를 찾은 후에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실천력이 약해지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왕수인은

마음이 곧 ‘리’라는 ㉠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행위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왕수인은 주희와 입장이 ㉡ 일치한다. 그러나 왕수인은 도덕 실천의 문제는 개별 존재의 마음인 주체성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모든 도덕률과 이치의 근원이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의미로, 모든 인간과 사물에 두루 존재하는 보편성을 증명한 주희의 입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즉 왕수인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마음에서 본질을 찾는데, 마음에 항상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 판별할 줄 알고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왕수인은 근본적으로 자아, 곧 개인의 자각과 양심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에게 있어 각 주체는 사회의 기초이며 사회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런 그의 생각이 집약된 것은 치양지(致良知)라는 개념이다. 치양지는 ‘양지를 모든 일에서 실현한다.’라는 뜻으로, 도덕의 실현이 정좌하여 독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농경, 군역 등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함으로써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사대부의 전용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 속에서도 추구되는 학문을 낳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오만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더욱 악해지며 견문이 넓어질수록 언변만 화려해질 뿐이라는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서민층이 성장하여 서민 문화가 발달해 가던 명나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세계관이 필요했는데, 양명학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앎과 실천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마음에서 분리된 본성을 밝혀내어 도덕적 실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마음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특정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마음의 작용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학자의 입장에서 해당 개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